

나주 '365일 시간제 보육' 원도심 확대

전남 첫 연중무휴 돌봄 서비스 송월동 3호점 1일부터 본격 운영 빛가람·남평 이어 '3대 권역' 구축

나주시가 전남지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365일 연중무휴 자녀 돌봄 시스템'이 3대 권역에 모두 구축됐다.

나주시는 지난달 30일 송월동에 위치한 공전어린이집에서 '365일 시간제 보육실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65일 시간제 보육'은 맞벌이, 주말·야간 근무, 응급 진료·입원 등 부모의 긴급한 사정 때문에 공백이 발생한 자녀 보육 고민을 해소해 주는 한발 앞선 돌봄 복지 서비스이다.

일과 가정의 조화,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선 8기 출범 후 역점 추진 해오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전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빛가람동 킨더브레인 어린이집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남평어린이집을 2호점으로 개원했다.

3호점은 원도심인 송월동에 위치한 공전어린이집(나주시 남교문로 36-14)이 위탁을 맡아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돌봄 서비스 대상은 부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



윤병태(가운데) 나주시장이 최근 송월동 공전어린이집에 문을 연 '365일 시간제 보육실' 3호점을 찾아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나주시 제공>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가구의 '생후 6개월~미취학 아동'이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비용은 시간당 3000원이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도 이용 가능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365일 시간제 돌봄은 나주시가 전남권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선도 보육 행정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나주형 출산 정책, 안심 육아 체계를 탄탄히 구축해 저출생 시대 극복에 앞장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음악 듣고 자란 유기농 쌀' 화제

음악농법, 벼 신진대사 강화 해충 발생 감소 쌀 품질 높여

강진군에서 특별한 농법으로 지어낸 일명 '음악 듣고 자란 쌀'이 화제다.

이 쌀은 생육 주기에 모차르트 음악 등 서양 클래식과 전통 풍물 등의 음악을 들려주는 그린음악농법을 통해 생산되는 유기농 쌀이다.

그린음악농법은 작물에게 음악을 들려주어 벼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영양분 흡수를 촉진시켜 병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한다. 또 해충 발생이 감소되고 당도가 높아져 밥맛을 좋게 하는 환경친화적인 신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법인인 영동농장은 1998년부터 26년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 왔으며, 유기농 쌀 생산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이 축적된 법인이다. 전남도 유기농 명인이었던 전임 오경배 대표와 함께 현재까지 법인을 이끌어 온 김현우 대표의 유기농 농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

좋은 품질을 골라 어린 때부터 포트 육묘로 생산해 모를 밀식하지 않고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해 낸다. 여기에 화통점정으로 생육 주기에 음악을 들려주며 농부도 벼도 모두 행복한 농사를 짓고 있다.



강진 음악 듣고 자란 쌀.

단일 단지로 80ha 면적에서 자라나는 벼는 오전에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등 클래식을 들려주고 오후에는 전통음악인 사물놀이, 농악 등을 40대의 스피커로 들려주고 있다.

영동농장은 국내 유기농인증 뿐 아니라, 미국 농무성(USDA) 유기농산물 인증을 2010년 획득했으며, 고정고객의 꾸준한 주문이 26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포장 단위의 유기농 쌀이 지난 '추석 선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유기농 쌀 가격은 4kg 2만4000원, 10kg 5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주문 및 구입 문의는 강진쌀 홈페이지(gangjinsal.co.kr)와 강진쌀 판매협의회(061-430-3108)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청강창극단

7~9일 '효녀 칭' 공연

장성군 지역예술단체 (사)청강창극단이 7~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효녀 칭' 창극 공연을 연다.

(사)청강창극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 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세연 단장과 4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예술단체다. 창극은 우리나라 전통 소리인 '창'을 바탕으로 펼쳐내는 음악극을 말한다.

'효녀 칭'은 (사)청강창극단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이후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전통 판소리 '심청가'에 음악극 형식을 입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창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장성 향토강 가을축제' 기간에 마련돼 많은 관람과 호응이 예상된다.

공연 시간은 7~8일 오후 2시와 7시, 한글날인 9일은 오후 2시, 5시다.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거나 (사)청강창극단에 직접 전화해 예약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1000원이다. 장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사)청강창극단은 올해 말 창작 창극 '홍길동' 공연도 총 6회 진행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함평군 개인정보 보호 관리 평가 우수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기관 표창

함평군이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전국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등 799개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점수를 산정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표창한다.

평가는 52개 정량지표와 8개 정성지표로 이뤄지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로 진행했다.

함평군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이는 243개 지자체 평가 대상 기관 중 유일하다.

함평군은 2022년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이상의 함평군은 "이번 수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함평군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지역사회의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개교 100주년 장흥 대덕초 남진 초청 콘서트

내일 '100년의 흔적...' 기념식

장흥군 대덕초등학교가 오는 7일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대덕초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기념일에 앞서 5일 오후 5시부터 '100년의 흔적과 미래로의 도약'이란 주제로 기념식을 갖는다.

기념식에는 졸업생과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남진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을 초청, 기념 콘서트도 열린다.

추진위는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탑 건립, 교문 신축 등 학교 환경 개선사업과 '대덕초 100년 사' 편찬, 은사님 찾기, 동문과 전 읍민 대상 사은

품 증정, 기수별 동문 행사 등을 가져왔다.

또 동문과 지역민 1200여명도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6억5000여만 원에 이르는 기금과 물품을 추진위에 전달했다.

대덕초등학교는 일제 강점기인 1924년 대덕면 민들의 모듬으로 학교부지를 마련, '대덕 공립보통학교(4년제)'로 개교한 이래 지난 100년 동안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해 왔다.

이귀남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대덕초등학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후배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졸업생과 읍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대동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군민사랑방 주말까지 확대 운영

담양군이 중장년층의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는 중년 섬터인 '군민사랑방'을 주말까지 확대해 시범 운영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담양형 향촌돌봄'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확대 운영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담양터미널 입구에 마련된 군민사랑방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담양군 군민사랑방의 주요 이용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층으로 지난 8월 말까지 4300여명, 월평균 20명 이상이 꾸준히 방문하며 중장년층의 다양한 취미활동 공간 및 소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중장년층이 더욱 풍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사랑방을 주말에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층이 활력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